현대제철 합격 자기소개서

직무 : 연구개발

**1.자신의 성장과정에 대해 서술하여 주십시오.(100자)**

청춘의 실패란, 실패가 두려워 도전하지 않는 것이며 스스로에 대해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전적으로 임하고 실패하더라도 그때마다 일어나, 또 다시 앞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2. 본인 성격의 장,단점을 서술하여 주십시오.(200자)**

[책임감과 열정을 겸비한 멀티 플레이어]

저는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던지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완수해 내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일에 대해 빨리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사소한 것들을 놓치는 면이 자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메모하는 습관을 길러 놓치는 것들을 자주 보완합니다.

**3. 자신의 사회활동 및 대외활동에 대해 서술하여 주십시오.(200자)**

[지식공유-새싹멘토링]

대학시절 사회활동으로 약 3년간 새싹멘토링을 임하였습니다. 맨 처음 인문계 진학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멘티들이 고등학교에 잘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성적도 좋아지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학생이었던 멘티들이 고등학생이 되기까지 다방면으로 성장해 나간 모습을 만들었고 보탬이 되어 보람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4. 현대제철에 지원하게 된 동기 및 포부를 서술하여 주십시오.(200자)**

한국전쟁 후 부터 황폐화된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주춧돌 역할을 하며 국내 철강산업의 1인자라 생각하는 현대제철이 세계 철강 산업의 리더가 되기 위해 발전해 나아가는데 일조하기 위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열정과 패기가 철의 단단함과 견고함이 어우러져 저의 꿈과 희망을 현대제철과 함께 펼쳐 나아가고 싶습니다.

**5. 본인이 해당직무를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경험 전공 등을 연계하여 서술하여 주십시오.(400자)**

[연구관리는 창의성이다]

연구관리 업무는 회사의 계속적인 창의성을 양산하는 또 다른 생산라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신입사원으로써 3가지를 약속드립니다.

대학생의 기본은 제 전공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수업을 들을 때 프라이드 중 하나는 항상 세 번째 줄 안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줄에 앉으면서 교수님과 아이컨택하고 수업시간을 공유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저를 수업시간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 결과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꾸준한 자기계발을 통하여 발전하겠습니다. 둘째, 18시간 몰입의 법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루 8시간 일을 한다면 나머지 10시간은 일에 대한 생각으로 채우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6. 현대제철 자동차그룹의 핵심가치(고객 최우선, 도전적,실행, 소통과**

**협력,인재존중,글로벌 지향)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자신을 PR하여 주십시오.(500자)**

[ 도전정신: 엿장수의 활동도와 관객의 수는 비례한다 ]

학창시절 많은 도전을 하였습니다. 그 중 기억에 남는 경험은 많은 도시축제 관람객 앞에 나서봤던 경험입니다. 저에게는 2% 부족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저희 팀이 담당했던 부수에는 관객 수가 저조하여 관객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스텝과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홍보의 부족이라고 판단하여 판소리 주제와 어울리는 ‘엿장수’ 역할을 하여 홍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자진해서 엿장수 역할을 자원했습니다.

엿가위를 들면서 주위에 가족들과 함께 온 아이들에게 ‘엿장수 아저씨!’와 사진촬영의 기회를 주고 엿을 나눠주면서 관심과 흥미를 돋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일 대비 약 1.8배의 티켓을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입사 후에 도전을 포기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도전해 보는 것을 즐긴 줄 아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7. 자신의 경험 중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이며 그 일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다하였는지 서술하여 주십시오.(500자)**

[ 칼라베쓰+브레인라이팅=새로운 단초 ]

LINC사업단에서 주관하는 8박10일간 선진기술연수를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유럽지역에 신재생에너지에 관련하여 눈으로 보고 팀별로 기존에 없는 새로운 방식의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조는 아이디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면 그 것은 이미 시중에 있는 아이디어였고,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당교수님과 미팅을 했고 조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1차원적으로만 생각했던 점과 어떤 주제에 대해 정확히 집중받을 것을 조언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조원끼리 접근해 나가갔습니다.

우선 비행기내에서부터 관찰하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주변사람이 무얼 먹는지 무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았습니다. 그 후 유럽지역에서 어떠한 단초 소재를 찾아서 다른 단초와 결합하여 칼라배쓰와 브레인라이팅 기법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